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

영암군, 외손자·손녀 건강하게 양육한 할머니 위탁가정 모범사례로 소개

“제게 할머니는 ‘두 번째 엄마’ 같아요. 엄마보다 더 엄마 같달까.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와 동생을 지킬게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영암군 삼호읍의 김영인(22, 가명) 학생은, 자신과 장애인인 여동생을 포기하지 않고 길러준 외할머니가 고맙다. 대학교 2학년인 영인 학생이, 올해 75세인 외할머니와 영암에서 같이 살게 된 때는, 2006년 여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다.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동생을 낳은 엄마가 병원에서 사라져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

이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은 외할머니는 약한 생명을 이어가는 어린 손녀를 차마 그대로 두고 올 수 없었고, 남매를 영암 집으로 데려와 기르기로 시작했다.

설상가상 2007년 부모가 이혼해 아이 아빠와 연락도 끊기고, 2009년 여동생은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다.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가진 할머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며 두 아이의 학교생활부터 식사 준비, 재활치료까지를 도맡았다.

특히, 혼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고 누워지내는 손녀의 손발이 돼주며 건강을 돌봤다.

영암군은 2012년 영인 학생 가족을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등록하고, 이듬해에는 무상 임대주택 ‘달뜨는 집’에 입주하도록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남매를 ‘가정위탁 보호제도’에 등록해 양육보조금, 세대위로금, 대학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매년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할머니의 헌신에 가정위탁제도가 뒷받침된 결과, 영인 학생은 군대를 마치고 학업을 이어가며 장차 가족을 자기 손으로 돌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여동생은 그사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무사히 졸업해 할머니와 밝게 생활하고 있다.

소식이 끊겼던 남매의 엄마도 최근에 연락이 닿아 아이들의 성장을 알고 지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영암군은 올해 5~6월 2분기 위탁가정 23세대, 31명 보호 아동의 기본생활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정기 실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현장 점검에서는 △



영암군 무상임대주택달뜨는집.

아동 생활 및 건강관리 상태 △개발 아동 맞춤형 보호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후원금·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 △가정위탁가정 양육환경 및 아동 정서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인 학생의 가족도 여기 포함돼 있고, 영암군은 17년 동안 이어져 온 가정위탁 제도의 모범 사례로 영인 학생 가족을 발굴·소개하고 나섰다.

남매 할머니의 바람은 외손녀와 앞

로도 계속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어르신은 “이제는 이 아이가 없으면 나도 살 수가 없다. 내 힘이 닿는 한 끝까지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전했다.

영암군은 정기 현장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아이의 권익을 최우선에 놓고 아동 의견 청취 절차 강화, 민감 사안 외부 전문가 동행 점검 등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가족의 쉼을 지키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멘토기관)가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 9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활성화하고자 멘토 기관을 선별하고 제도발전 간담회(2차)를 가졌다. 돌봄 가족의 쉼을 보장하고 장기요양 시설 입소를 지연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는 제도시행 11년이 되었지만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이용률이 0.2%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노력을 작년부터 이어왔다.

먼저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였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와 설득을 통해 제공기관을 확대하였고, 올 해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서비스 제공 의사는 있지만 청구방법 등 이해부족으로 운영을 꺼리는 기관을 돕고자 멘토 기관

을 지정하였다.

멘토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통합재가, 단기보호, 요양원 등 분야별로 장기요양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베테랑 시설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서비스(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제공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 되었으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돌봄 가족이 쉼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광양112자전거봉사대, 찾아가는 반찬 봉사로 이웃사랑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희상, 민간위원장 허형채)는 6월 11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 ‘식사하셨습니다’ 반찬배달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반찬 배달 서비스는 광양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위원장 허형채)가 주관하고, 광양112자전거봉사대(대장 허남식)가 협력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을 이어가며,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은둔형 중장년 등 취약계층 40가구에 정성 가득한 반찬을 전달해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날 봉사에는 광양112자전거봉사대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와 조리를 도맡았으며, ‘주담주담 품로강단’(단장 최은미) 회원들과 함께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마음을 담아 조리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정성껏 수행했다.

광양112자전거봉사대는 그동안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나눔 활동 ‘따뜻함 함께 나누요’ ▲사랑의 후원 물품 전달 ▲장애인자립센터 무료 급식·배식 봉사 ▲서천면 일원 해바라기정원 조성 ▲장애



인의 날 활동 도우미 ▲여울봉사대와 함께하는 서천 정화 활동 및 야간순찰 등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광양112자전거봉사대 허남식 대장은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군-남양주 청소년, 다산의 고장에서 실학 정신 배우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 실학박물관, 강진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 대상 역사문화 교류 프로그램 ‘다산역사탐험대’를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5월 체결된 ‘다산 정약용 교육과정 운영 협약’을 바탕으로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을 실현한 첫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강진 지역 중학생들이 남양주 실학박물관, 정약용 유적지, 수원화성 등을 탐방한

데 대한 상호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에는 구리 남양주 관내 중학생들이 강진을 방문해 강진 관내 중학생들과 함께 정약용의 유배지를 직접 탐방하며 실학과 청렴의 정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다산정려연수원에서 숙박하며 공직자의 청렴 윤리와 공동체 의식을 생활 속에서 배우는 인성교육도 함께 받았다. 단순한 견학을 넘어 삶과 사상을 직접 체득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의 인식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진/손경설 기자

함평군,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행사 실시

전남 함평군이 환경의 날을 맞아 생활속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함평군은 12일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행사”가 지난 5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슬로건인 ‘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을 주제로 함평군

공무원과 함평군환경보전연합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여자들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서 집결 후 함평공영터미널까지 행진하며 인근 시장과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군민에게 생활속 환경보호 실천을 홍보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군민 모두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